

한국 상(裳)의 일본 전파와 변천에 관한 연구*

김 미 자

서울여대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Transfer of Korean Sang(Skirts) to Japan and its Changes

Mi-Ja Kim

Dept.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 Professor

(2002. 2. 2 투고)

ABSTRACT

This study proved that Japanese skirt(裳 'sang') during 5-8 century was introduced by Korean emigrants. The skirt of the Tang dynasty(7C), which used to be worn among Japanese upper class in the Nara period(8C), is understood to be transferred through Korean as it was popularly worn in the *Shilla* Dynasty at the same time.

Because Japan was not able to trade with Tang during 4-9 century, unless pass through the Korean peninsular, it suggests that Japanese costume was affected by Korean style of costume.

At the later *Heian* period in Japan, *Kosode* was mainly worn among Japanese and wearing a skirt has to be abandoned. Instead, only the train, a part of skirts, remain as a decorative part on the back of Japanese woman's formal dress and it continued until now.

Key words : Korea skirts(한국치마), Tang skirts(당치마), Japanese skirts(일본치마),
Later *Heian* period decorative part of formal dress(헤이안시대 후기 장식용 치마).

I. 서론

한국의 기본 복인 상은 현재 치마의 원형으로 고구려 벽화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상(裳:치마)은

유(襦:저고리), 고(袴:바지), 포(袍:두루마기)와 함께 일본에 전해졌으며 남녀 모두가 착용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古墳, 飛鳥, 白鳳시대의 상의 원류는 한국임을 밝히고, 奈良시대 의상은 唐

* 본 연구는 1999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학술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상이 일본에 전해져 平安 시대이후 별로 입혀지지 않는 이유를 찾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한국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이며, 일본은 古墳시대부터 江戸시대까지이다.

연구대상은 일본의 하나와(埴輪), 天壽國繡帳, 高松塚벽화, 풍속화, 유물이며 한국의 벽화, 초상화, 토우(土偶), 용(俑)이다.

연구방법은 한국과 일본의 상의 문헌자료와 유물자료를 분류 고찰하여 유사성과 차이점을 추출해내는 비교방법을 사용하였고, 형태론에 초점을 맞추었다.

II. 한국의 상(裳, 裙)

여자의 상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로 나누어 고찰하고, 남자의 상, 예복용 하상(下裳)을 고찰한다.

1. 삼국시대의 여자 상(裙)

고구려, 신라, 백제의 의복은 같다는 《梁書》, 《魏書》, 《隨書》, 《北史》, 《舊唐書》의 기록과 가시적 자료¹⁾가 거의 일치함으로 인물 자료가 많은 고구려벽화 28기 중에서 상의 양식을 고찰한다.²⁾ 치마에 관한 용어는 문헌에서 군과 상이 사용되었으므로 두 가지 용어를 다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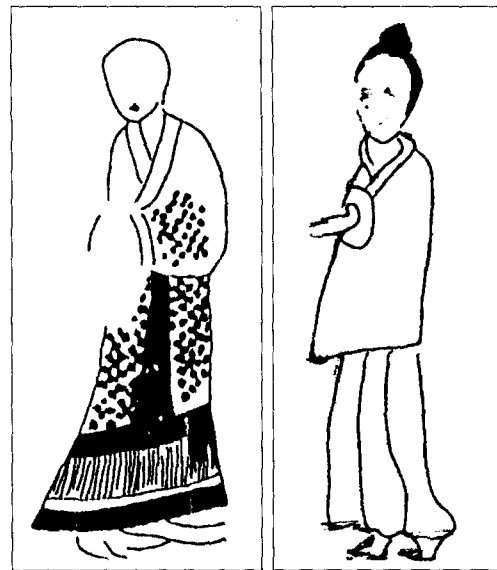
벽화에 보이는 여자 상의 형태는 주름치마가 가장 많았고, 길이는 땅에까지 끌리는 상류층용 긴치마(도 1)와 바지가 보이게 짧은 하류층용 치마가 있으며 색동치마(도 2)와 치맛단에 이색선을 댄 치마(도 3)가 있다. 『북사』³⁾에 고구려 부인은 유와 상에 선을 둘렀다는 기록과 일치한다. <도 3>은 치마 2개를 입은 것으로 생각된다. 선이 있는 內裳을 선이 없는 表裳보다 길게 입은 것이라고 본다. 무용층의 주방에서 차를 나르는 3인의 치마도 <도 3>과 같이 선이 없는 表裳을 꼬불꼬불한 선이 있는 표상을 입었으며, 각저총의 부인은 선이 있는 내상과 표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쪽치마(도 4)는 넓은 폭을 잇고 위쪽에 주름을 잡은 것 같은 치마이다. 안악 3호분의 흙추는 여인들은 허리부분에

만 주름을 잡고 뾰족한 장식 천을 둘렀고 치마 밑단에 선을 두른 치마를 입었다. 또한 안악 3호분의 디딜방아를 짊어는 여인(도 5)은 중국의 여인과 같은 착장 방법으로서, 유 위에 치마의 위쪽 부분만 주름잡은 중국식(현재 우리 치마와 같음) 치마를 가슴에 높이 입고 裱(솔)를 들렀다.



<도 1> 쌍영총 벽화의 長褙와 주름치마 (韓國美術1 古代·高麗)

<도 2> 수산리 고분의 색동치마 (한국미술전집4-벽화, p.29)



<도 3> 장천 2호 여인상 주름치마와 선 있는 치마착용 (조선일보사 1983. 4. 26)

<도 4> 덕흥리 고분 쪽치마(박경자, 덕흥리 고분벽화와 복식사적 연구)



<도5> 안악3호분 유 위에 상과 裒착용 (고구려문화전 p.19)

<도6> 신라 土偶 부인의 주름치마 (한국미술전집3-土器 土偶 瓦博, p.93)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신라 문무왕(661~680) 조에 文明王后가 錦裙을 주고 꿈을 샀다는 기록이 있고 경주 황남동 출토 부부상중 부인상(도 6)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土偶가 아닌 서민 부인이므로 주름넓이가 넓은 주름치마를 입고 있다고 본다.

2. 통일신라시대의 여자 裳(裙)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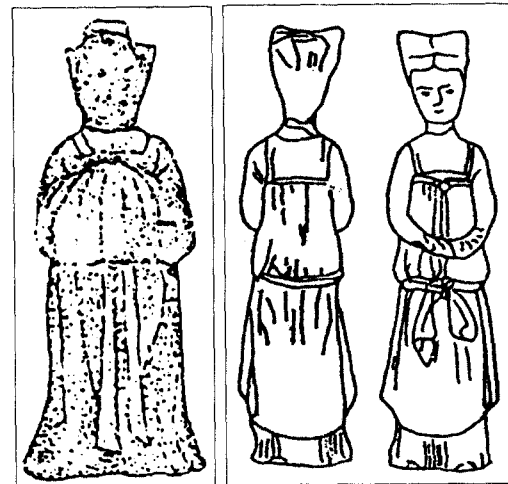
통일신라시대 차림새를 관찰할 수 있는 자료는 1986년 6월~8월에 경주 용강동(龍江洞) 고분에서 출토된 여자용(俑) 13점과 흥덕왕 복식금제의 기록과 중국자료가 많다. “신라는 문무왕 4년(664) 여인의 옷을 중국제로 고친다”⁵⁾고 한 이후 예복은 당제를 따랐고 차츰 평상복도 당제가 되었음을 흥덕왕 복식금제로 알 수 있다. 삼국시대의 기본상을 착용한 자료는 없으나 계속 입고 있는 계층도 많았을 것이며, 고려와 같이 관직자들이 공식적인 일이 끝난 후 집에서는 우리 옷을 입었을 것이다.

경주 용강동 여자 용(俑) 13점은 모두 머리를 높게 틀어 올린 당나라 여인들의 차림새와 같은데 3가지 모습이다. 저고리(內衣) 위에 상을 입고 표(裒: 술)를 두른 3인파, 저고리 위에 상을 입은 10인(도 7)과, 소매 넓은 저고리 위에 상을 입고 표를

두른 모습이다. <도 7>은 저고리 위에 상을 입은 용으로 2개의 어깨끈이 보인다. 내상용(內裳用) 어깨 끈이라 생각한다. 용강동 용과 다른 입음새인 당용(도8)을 통해 어깨 끈의 용도와 흥덕왕 복식금제의 내상, 표상, 대의 용도, 치마 여밈 등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여인의 옷차림을 알 수 있는 당용(唐俑 도 8)을 보면 상을 저고리 위로 입었고, 왼쪽 옆구리에서 여몄으며, 가슴 위로 치켜올린 치마허리 위로 허리띠를 매어 앞으로 늘이고 허리에 또 다른 허리띠를 매어 내상(內裳)이 보인다. 어깨에는 2개의 어깨 끈을 하였는데 내상용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상과 表裳의 허리띠를 같은 곳에서 맬 수 없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내상용 어깨 끈이라고 생각한다. 당 여인들을 살펴보면 상을 저고리 위에 입고 裒나 배당, 배자를 덧입은 모습이 대부분이다.

흥덕왕 복식금제(834년)에는 남녀 각 5등급에 대한 22종목의 복식 착용 금제가 적혀있는데 직위가 높을수록 금하는 항목이 적고 4두품 남,녀의 항목이 가장 자세하다.



<도7> 용강동 俑. 유 위에 상 착용 (신라토용 p.8 국립경주박물관)

<도8> 唐의 俑(동경 帝室박물관 소장) (歷世服飾圖說 p.66.)

표상(表裳)은 겉에 있는 치마로 치마허리(말기)

가 있으며 옆구리에서 여며 입는다. 삼국시대의 치마와 다른 점은 주름이 치맛단까지 잡히지 않고 현대 치마같이 위에만 잡는 점이다. 내상(內裳)은 항상 속에만 입는 속치마가 아니고 치마 두 개를 입었을 때 속에 입었기 때문에 내상이며, 복식금제에 4 두품 여자의 내상은 없다.

옷감으로 만든 허리띠(帶)를 허리말기 위로 매어 앞으로 늘였는데 치마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는 역할과 장식역할을 했다. 아마도 <도 8>과 같이 입은 모습도 있었을 것이다.

3. 남자의 상

남자가 상을 입은 모습은 단 하나 무용총 벽화에 스님(도 9)이 주름치마를 착용하고 있다. 문헌에는 『三國遺事』太宗春秋公條에 김춘추가 裙을 착용했는데 축국을 하다가襟紐가 떨어졌다는⁷⁾ 기록이 있으나 『三國史記』신라본기 문무왕上에는 “춘추의 衣紐가 떨어졌다고 되어있다”⁸⁾



<도9> 무용총 스님의 주름치마 (한국미술전집4, 벽화)

이것을 이 여성은 상은 여자의 옷으로만 생각하여 삼국유사 기록을 의심했다.⁹⁾ 앞으로 연구해야 할 사항이지만, 필자는 겉옷으로 입던 주름치마가 예복용 下裳으로 입혀졌다는 가설을 세워본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상을 입은 적이 있었다고 보며 이것과 예복의 하상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없는 자료를 일본의 자료로 유추할 수 있다고 본다.

4. 하상(下裳)

안악 3호분 여주인(도 10)의 袍 밑으로 보이는 주름은 예복용 裳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에서는 下裳은 이미 漢代의 여자(도 11)가 착용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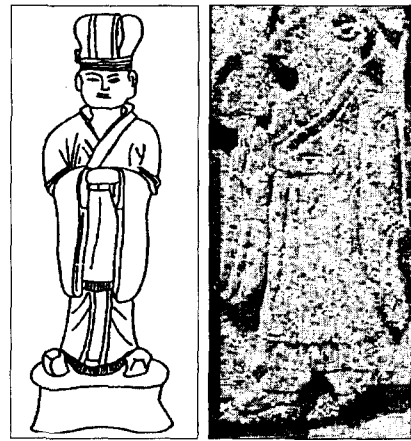
北魏時代 皇后禮佛圖 [龍門賓陽洞]에서도 3사람이 예복 밑에 하상을 착용하고 있다¹⁰⁾.

下裳은 男子도 착용하여, 東漢末年 山東에서 발견된 石像의 인물에서도 裳을 착용하고 있고, 隋代와 唐代의 冕服과 文官俑(도 12)과 泰陵과 健陵의 文官石像 2人的 朝服 밑으로 下裳을 착용한 것이 보인다¹¹⁾. 우리 나라에는 언제 下裳이 전해졌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안악 3호분 여주인과 統一新羅時代의 十二支護石像(도 13)이 입고 있다.



<도10> 안악3호분 여주인의 肩衣와 下裳 (高句麗文化展, p.14)

<도11> 漢代女俑의 下裳 (日本の美術6-高松塚古墳, No 217, 도 86.)



<도12> 唐의 文官 俑의 褶과 下裳 (中華人民共和國 出土文物展 圖169)

<도13> 통일신라 12支護石像의 下裳 (국립경주미술관도록 p.151.)

III. 일본 裳의 변천

일본복식의 시대구분은 北村哲郎의 구분법에 따랐으며 우리 나라의 삼국시대와 같은 시기인 古墳시대부터 다루었다. 古墳시대부터 室町시대까지는 二部式(衣袴, 衣裳)이 주로 착용되었고, 平安시대에는 袍의 착용이 많아졌으며 일본 禮服의 國風化가 이루어졌다. 江戸시대에 기모노(着物)가 정립되어 현대에 이르고, 유, 고, 포는 作業服(民俗服)으로 현재까지 착용되고 있다.¹²⁾

치마에 관한 용어는 일본에서도 상과 군이 혼용되었다.

1. 衣袴, 衣裳樣式시대(古墳시대)의 상

고분시대의 상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인물 하니와(埴輪)인데, 하니와는 고분시대 의복형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고고학적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 상의 형태를 알 수 있는 문헌¹³⁾을 참고하여 하니와의 상과 한국의 삼국시대 상을 비교 분석한다. 인물하니와의 기원에 관한 最古의 기록은 殉死代用說로 『일본서기』 垂仁記에 기록되어 있는데, 野見宿禰의 진언에 따라 순사의 풍을 고치기 위해 인물하니와가 만들어졌다는 설이다. 이설에 高橋建自(고고학자)는 찬성하였고, 喜田貞吉(京大) 박사는 반대하여 두 사람의 유명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후 하니와의 기원은 한동안 학회에서나 많은 학자들에게 대단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後藤守一(박사, 明治大學)는 하니와는 고분시대의 葬列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죽음의 여행에 추종했던 사람이나 말을 살아있는 것으로 바꾼 것이 하니와였다고 말하고 있다.¹⁴⁾

金井塚良一은 하니와의 출현은 5C 중엽 河内에서 인물하니와를 葬送儀禮로써 채용했다고 하면서 그 전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古代氏族이 河内를 本貫地로 하고 있었는데 5C 후반에는 주력을 본관지로부터 北關東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대 발전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였다.¹⁵⁾

문헌¹⁶⁾에서 참고한 인물하니와 40여 점은 상하

의를 갖춘 하니와와 상의만 입은 하니와의 수가 비슷하며 남자 하니와가 대부분인데 여자 상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7점이다. 남자가 상을 착용한 예는 하니와(도 18)에서 1점, 벽화(도 17)에서 1점이 확인된다.

1) 여자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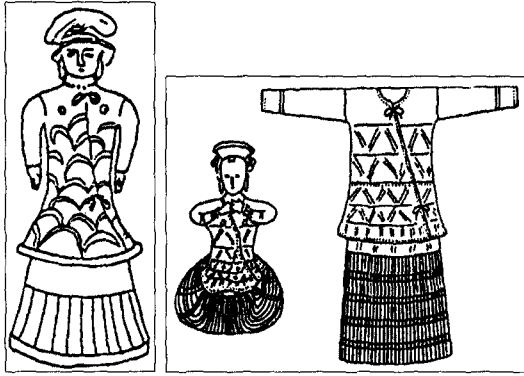
여자 하니와 상의 형태에는 3종류가 있다. 첫째, 郡馬縣 伊勢崎市 豊城町 출토(6C 후반 높이 126.7cm) 귀부인(도 14)의 길이가 긴 상은 이층 주름치마로 치마의 중간쯤에서 주름을 잡았고, 밑단에 선을 둘렀으며 주름너비는 넓다. 정창원에 소장된 이층 주름치마(도 25)에는 밑단에 선이 없다.

둘째, 郡馬縣 觀音山 고분 출토 앉아 있는 여인(도 15: 6C 후반 높이 102cm)이 좁은 주름을 허리에서 밑단까지 잡았는데 치마 옷감에 횡선이 있다고 小堀榮壽¹⁷⁾는 埴輪樣式分類圖에서 밝혔다. 나란히 앉아 있는 3인의 童女(높이 102cm)의 치마 뒷부분에 <도 15>와 다르게 횡선만 굵게 표현 됐고 종선은 몇 개 밖에 없으나 4개의 분위기가 비슷하다. 아마도 같은 고분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횡선치마로 보았다.

셋째, 千葉縣 經僧塚 고분 출토품(도 16)은 크게 올린 머리, 좌입 상의에 매우 가는 주름치마를 입은 성장한 여인이다. 상에 있는 매우 가는 줄무늬가 上衣에도 있는 것으로 보아 옷감(축면류?)을 표시한 것 아닐까 추측해 본다. 축면류로 만든 裳의 허리부분에만 주름을 잡은 치마로 볼 수 있다. 상에 횡선이 있으나 깨진 부분을 이은 선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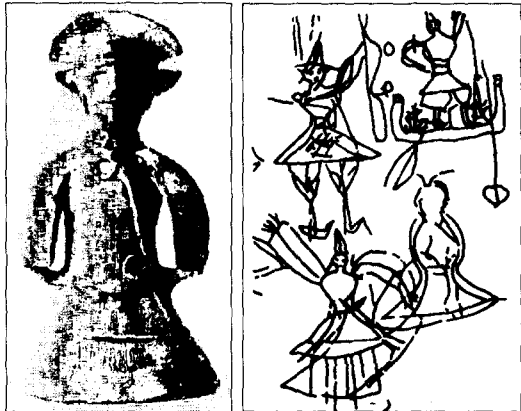
2) 남자의 상

남자가 상을 착용한 자료는 『古事記』 『수서』의 기록과 하니와상과 벽화인물상이 있다. 상에 관한 기록은 『고사기』에는 伊耶那岐(男神)가 부정하고 더러운 나라를 다녀왔으므로 몸을 깨끗이 씻고 부정을 없애기 위해 冠帶·裳·衣·袴 좌우 손목의 팔찌(手纏)를 벗어버렸다¹⁸⁾고 하였고, 『북사』와 『수서』의 倭國傳¹⁹⁾에는 남녀 모두 상(裙)과 유(襦)를 입었으며 여자의 상에는 모두 선을 둘렀다고 하였다. 高井田 横穴벽화인물(도 17)은 머리에 높은



<도14> 귀부인의 2층치마 (小堀榮壽의 埴輪様式 분류도, 衣生活 191)

<도15> 황선 주름치마(小堀榮壽의 埴輪 様式 分類圖, 의 생활 191)



<도16> 성장한 여인 千葉縣經僧塚 출토 (日本の美術3 p.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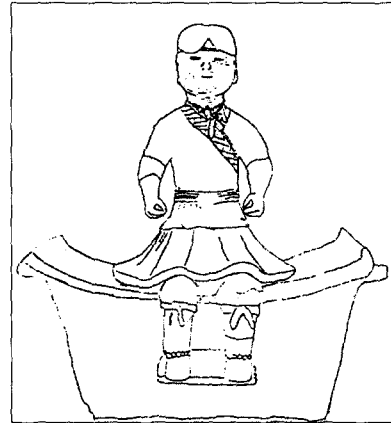
<도17> 高井田横穴壁畫의 衣裱과 衣裳 (日本美術全集-土器と埴輪, Vol.1)

변상(弁狀)관모를 쓰고 등에 화살통을 지고있고 衣와 긴 주름치마를 착용하였는데 주름넓이가 넓다. 머리에 쓴 관과 화상통으로 보아 남자가 상을 착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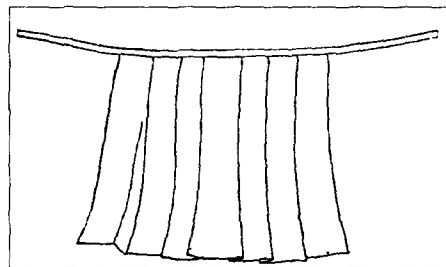
胡座에 앉아있는 하니와 남자(도 18)는 首長(權力者)층²⁰⁾으로 끈은 깃 左衽衣·裳·禪을 착용하고 있다. 상은 넓은 주름치마같이 선이 그어져 있으며, 길이가 짧아 좁은 끈이 보이며 끈의 무릎 밑에 대님을 매었다.

江馬務는 “상의 형태는 <도 19>와 같으며 허리

에 둘러 입는데 왼쪽에서 끈을 묶었다. 남자의 상은 길이가 짧아 무릎에 이르고 여자의 상은 길어 땅에 끌리는 것도 있다고 했다.”²¹⁾



<도18> 左衽衣, 裳 禪을 착용한 남자(奈良縣 三宅町출토, 日本の美術3 p.7.)



<도19> 상 (江馬務 風俗史圖錄 p.16.)

2. 袍袴. 裙 様式時代(飛鳥, 白鳳, 奈良時代)

6세기말부터 8세기말에 걸친 시기는 日本이 율령제 국가가 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처음 1세기는 그 준비기간으로 大和조정이 飛鳥로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飛鳥時代, 大和개신(645)부터 710년까지를 白鳳時代라 하며, 이후 70여 년간은 율령제 국가가 확립된 시기로 奈良時代라고도 하는데 唐의 수도를 본 뜬 平城京을 奈良에 만들어(710) 政治, 文化의 중심이 되었다. 왕권 세습의 강화와 중앙집권 체제를 위해서 推古天皇 11년(603)에 冠位 12階와, 聖德太子 12년(604)에는 헌법 17조를 제정하였다. 중앙집권체제는 大和 2년(646)에 발표된

大化의 改新으로 확립되었다. 天智天皇 10년(671)에는 日本 최초의 법전 [近江令]이 완성되고, 大寶元年(701)에 다시 정비한 大寶令을 발표 시행하였다. 또한 遣隋使와 遣唐使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隋와 唐의 文化를 받아들여²²⁾ 天武天皇 13년(685)에 새로운 양식인 唐의 袍 [團領]가 朝服으로 채용되어 이 때를 袍袴양식시대라 한다. 이후 大寶令(701)에 의해 禮服, 朝服, 制服 3公服제도를 정했다.²³⁾ 이와 같이 지배층의 의복이 中國의 영향을 받은 반면 서민의 의복은 별로 다른 점이 없었다.

1) 飛鳥시대의 裳(裙)

飛鳥時代의 상은 日本天壽國曼荼羅繡帳으로 알 수 있다. 국보로 지정된 天壽國曼荼羅繡帳은 성덕 태자가 推古天皇 즉위 30년(622) 48세로 돌아가자 부인 橘太郞女는 太子를 그리워하다 궁중의 采女들에게 명해서 태자가 왕생하고 계신 천수국(극락)이라는 理想淨土의 모습을 자수시킨 것²⁴⁾이다.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백제 아야(阿耶)계 도래인인 東漢末賢, 고구려계 도래인인 漢奴加己利 高麗加世溢이고 감독은 신라 가야 도래인인 部委久麻라고 한다.

天壽國繡帳에는 관인, 귀족, 남녀, 서민, 스님 등 40여 인물이 등장하는데, 앉아 있는 사람이 많으며 의복과 색 등 완전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인물은 8인, 上衣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인물은 26인이다.²⁵⁾

女子는 서 있는 6인과 3단 좌측 건물 안에 앉아 있는 2인(상의 수는 떨어져서 자국만 남아 있음) 총 8인을 살핀 결과 모두 衣.裳 2부제 차림새이며 건물 밖에 서 있는 여인들은 머리를 깎은 것 같다. 환속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다. 차림새는 3가지로 衣.裳.袴.바람을 맨 모습(5인), 衣.裳.袴 모습(2인), 衣.裳 모습(1인)이며, 상의 형태는 2종류로 신이 약간 보이는 긴 주름치마와 횡선이 있는 주름치마(도 21)이다. 습(도 21)은 모두 홍색이며 아아래로 보이는 길이는 밑단 넓이와 같아 보인다.

裳색은 홍색과 백색이고, 袴색은 모두 홍색으로 상위에 습을 더 착용했을 뿐 형태는 고분시대의 상이 계속됐음을 알 수 있다.

<도 20>의 남자가 바지 위에 입은 짧은 주름치마 같은 腰衣를 袴이라고 하는 설과²⁶⁾ 여자들의 습(도 21)보다 긴 편이어서 高橋建自는 “남자용裳”²⁷⁾이라고 했다. 그러나 필자는 상을 착용한 埴輪 남자상(도 18)과 비교해 볼때裳의 길이가 <도 20>보다는 길어서 습이라고 생각한다.



<도 20> 남자의 裙
(正倉院製と飛鳥天平の染織, p.111.)

飛鳥文化도 한국의 도래인이 만든 문화이며 복식 측면에서 飛鳥時代의 文化를 조망해 보면 이식 문화임을 증명할 수 있다.

2) 白鳳시대의 상(裙)

白鳳時代의 상은 高松塚벽화의 인물로 알 수 있다. 小林惠子は 高松塚벽화의 연대는 7C 후반에서 8C초라는 설이 지배적이며 피장자는 天武天皇의 忍壁窟자설, 백제의 왕족이라는 설 天武天皇이라는 설이 있으며 畫師는 고구려계의 黃署蓮本實이라고 추정했다. 인물상은 벽화제작당시 실제로 사용하던 복장을 착용한 것으로 官에서 제정한 制服일 것으로 추정했다. 벽화의 발상과 畫師 고구려에서 회칠과 투금구는 신라에서, 금박 붙인 관에 대한 발상은 백제에서, 人刀나 거울은 당에서, 그리고 官人이나 女官들은 일본 자체의 것에서 비롯한다고 한다면 高松塚는 당시 동아시아문화의 정수를 집합시킨 고분이라고 했다.²⁸⁾ 高松塚벽화에는 시녀(仕女, 采女)라고 생각되는 8인은 垂領, 좌입, 長衣를 땅에 끌리는 긴치마나 색동치마(도 22) 위에 입었다. 색동치마는 4인이 입었는데 색의 순서는 적자, 청, 백, 녹색이며 녹색치마와 청색치마는 각각 2인씩 A-line으로 부풀려 입었으며 치마 밑으로 백색 주름치마인 下裳을 입었다고 본다. 현재 飛鳥資料館에서 복원한 치마들은 치마 끝에 백색 주름을 잡아 붙였으나 下着의 주름일지도 모른다고 하

였다.²⁹⁾ 8인의 치마는 현대의 치마와 같이 치마허리 부분에만 주름을 잡은 긴치마이며 필자는 치마 밑으로 보이는 백색주름은 하상(주름치마)을 착용했다고 본다.



<도21> 주름치마와 흰선주름치마와褶
(正倉院裂と飛鳥天平の染織, p.111)



<도22> 高松塚벽화 색동치마 (高松塚と藤原京 p.8)

3) 奈良시대의 상(裙)

奈良시대의 樂人, 東大寺건축을 위해 만든 기구에 소속된 官人과 工人과 寫經所에 소속된 經師 雜使 고용된 여인 등의 의복이 정창원에 소장되어 있다. 정창원에는 포, 오자, 반비, 배자, 고, 상, 衫, 한삼이 있다. 衣 위에 상을 입은 신상과 시녀상

들은 통일신라 복식과 같다.

養老 2년(718)의 衣服令에는 황태자, 친왕, 문·무관, 내친왕, 여왕, 내명부의 禮服(최상위 의복)과 朝服이 정해졌다. 이중 여자의 조복은 내친왕 이하 5위의 명부(命婦)까지는 禮服에서 宝髻, 褶, 烏, 錦襪을 제외한 衣, 紵帶, 裙, 白襪, 履로 구성되어 있었다. 6위이하는 「의계(義髻)를 장착하고 衣의 색은 남자의 조복에 준하며 深淺綠紵帶를 띠고 綠縹紵裙을 착용하는데 다만 初位는 無地(무늬없는)의 裙을 입고 烏皮履를 신는다.」라고 『令義解』에 기록되어 있다. 조복을 입는 시기는 4계절의 첫달인 정월 4월 7월 10월에만 착용된 것 같다.

正倉院에는 令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복식 자료가 소장되어 있으므로 당시의 복식 실태는 더욱 복잡하고 또 시대에 따라 다소의 변화나 차이도 있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정창원의 樂服중에 吳女背子라는 소매가 없고 길이가 짧은 상의가 있는데 背子は 平安 2년(730) 여자의 복장이 바뀌었을 때 당나라 식을 본떠서 공복으로 채용된 것으로 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³⁰⁾ 그 예로 신공황후좌상(도 24)이 있는데 平安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목각채색상이 衣위에 상을 입고 배자를 덧입은 모습이다. 좌상이므로 내상은 보이지 않으나 내상을 입었다고 보는 필자의 의견과 같은 견해를 關根眞隆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즉 『延喜式』(927년)에 表裙과 下裙의 명칭이 함께 있다. 이것은 裙의 안쪽에 하나의 裙을 더 입은 것으로 上, 下 2종의 裙을 착용하고 있다. 나라시대의 下裙의 예는 보이지 않으나 역시 상류층 사이에는 착용하였다.³¹⁾고 하였다.

法隆寺五重塔内の 조각상은 和銅年間(708~714)에 완성된 것인데 여인상은 좁은 소매 衣위에 裙을 입고 극히 짧은 背子を 좌임으로 입고 있다.

正倉院 소장 烏毛立女 병풍도(屏風圖)에 한 여인은 나무 밑에 서 있고 한 여인은 앉아 있는(도 23)그림이 그려져 있다. 衣위에 치마를 가슴 위에 치켜 입고 대를 매어 앞으로 늘어뜨렸고 어깨에 領巾을 둘러다. 앉아 있는 여인은 衣위에 치마를 입고 대를 늘였고 어깨에 領巾을 둘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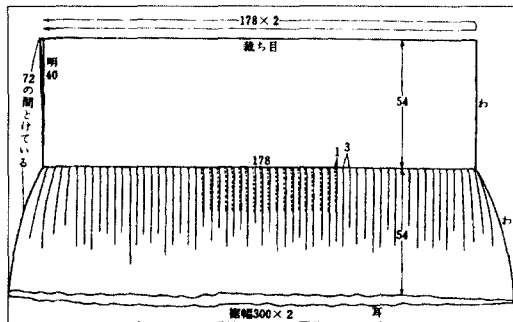
정창원 소장 刻彫尺八의 婦女遊樂圖의 4인의 여

인은 좁은 소매 衣위에 상을 가슴에서 입고 領巾을 둘러는데 河緒實英은 “이것을 여인의 朝服으로 본다고 하였다.”³²⁾ 정창원의 오녀배자와 반비는 養老衣服令에 없는 것인데 한국 흥덕왕 복식금제에는 있는 옷으로 한국에서 건너간 것이라고 본다. 치마는 2층 치마(본인이 입의로 붙임)2개와, 前裳(앞치마) 2개가 있다.



<도23> 鳥毛立女 衣위에 裳과 領巾 착용 (河緒實英 日本
의服飾 p.15)

<도24> 神功皇后좌상. 衣위에 상과 배자착용 (河緒實英
日本의服飾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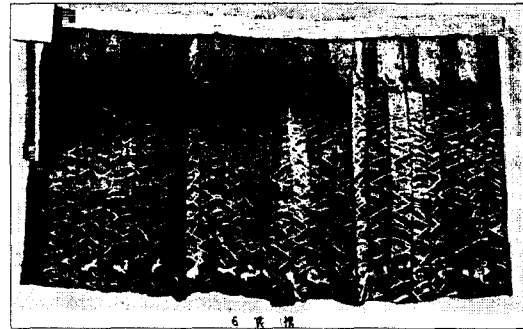
<도25> 正倉院의 白橡絶袴裳 (奈良朝服飾の研究도록편
p.15)

白橡絶袴 2층 치마(도 25)의 총 길이는 108cm인데 54cm 밑으로 길이 54cm 치마둘래 600cm에 주름(넓이 3cm)이 많이 잡혀 있다.

또 하나의 2층 치마인 褐色 縑單裳(실촉도가 없음)은 <도 25>와 크기가 비슷해 보이나 형태가 조금 다르다. 위쪽 치마 길이와 아래쪽 치마 길이의 비가 1:3인 2층 치마는 하니와 귀부인 상(도 14, 6C

후반)과 같다. 2층 치마도 저고리 밑에 입었을 것이다.

이상으로 보아 奈良시대에는 飛鳥시대의 상과 唐나라 상 2가지가 공존했다고 본다. 양노의 복영은 당풍일색이었으나 이것은 통일신라가 전한 것이라고 본다.³³⁾



<도26> 三位裳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p.222)

3. 束帶 袿 様式時代(平安時代)

平安時代란 京都로 수도를 옮긴 때(794~1185)부터 鎌倉에 幕府를 설치하고 이전한 때까지의 약 400년간을 말한다. 前期에는 唐風文化的 색채가 모든 면에 강했으나 後期에는 中國文化를 基調로해서 國風化하여 日本 독자적 文化를 형성한 시대이다.

弘仁 11년(820년)에 정해진 천황, 황후, 황태자의 服制는 분명히 당의 복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천황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의 사치스런 생활은 복식에도 영향을 미쳐 아름답게 치장하고 형식과 색채의미를 강조한 의례복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많은 행사와 놀이에 적합한 복식의 종류가 증가하고 分化되었다.³⁴⁾

1) 남자의 裳(袴)

남자 禮服用 상이 孝明天皇의 상과 3위의 상(도 26)이 있다. 치수를 찾을 수 없었으나 2개의 상은 비슷해 보이며 넓은 주름치마로 여자의 치마와 유사하다. 河緒實英이 그린 예복도(도 27)를 보면 상이 밑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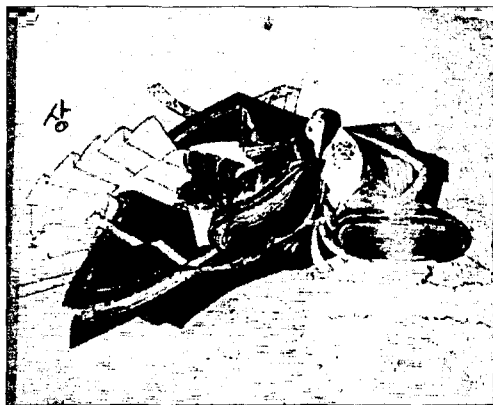


<도27> 親王代姿의 下裳 (河緒實英 日本の服飾 p.7)

2) 여자의 唐衣裳

唐衣裳(도 28)은 남자의 속대에 해당하는 공복이었으므로 晴裝束이라고도 하고, 또 궁정 또는 귀족의 집에 시중드는 궁녀나 시녀들의 제복과 같은 것이었으므로 女房裝束이라고도 하였다. 唐衣裳裝束이라고 한 것은 이 복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唐衣와 裳이었기 때문이다. 또 흔히 이것을 주니히토에(十二單)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몇 장씩이나 衣를 겹쳐 입는다는 의미에서 생긴 이름이다.

唐衣는 奈良시대의 背子가 변한 것으로 형태상의 특징은 옷길이가 짧고 임(杆)은 없으며 垂領으로 만들어졌고 맨 위에 입는 옷이다.



<도28> 裳·唐衣着用圖 (日本の美術6 p.41)

裳(도 28)은 역시 奈良시대의 裙帶에서 변화한 것으로 唐衣와 마찬가지로 허리 뒤에 끌리게 다는 장식용 服具였다. 이것도 역시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의식 시와 평상시와도 차이가 있었다. 옷감은 羅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綾과 문양이 있는 직물도 사용되었다. 색과 문양은 보통 흰 천에 大海라고 하는 해변의 풍경을 청색으로 접염한 문양이 사용되었고, 蘇芳과 청색 말농(末濃), 目染(紋染)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경사 시에는 金銀箔과 수, 자개 등으로 장식하였다.³⁵⁾

9C 중엽 이후 袴가 발을 가리는 長袴가 되어 小袖위에 입는 것이 유행이었다. 平安시대 시녀들이 小袖위에 袴를 입고 뒤에 상을 끌리게 입은 모습(도 30)이 있다.

서민여자는 일찍부터 실용적인 筒袖垂領의 고소데(小袖)를 입었는데 허리에는 짧은 布를 두르기도 하였다. 허리에 두른 布는 실용적인 앞치마의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생각되나, 古墳時代 裾의 遺風으로 생각할 수 있다. 소매 없는 上衣에 裳을 착용(도 29)하기도 했다.³⁶⁾



<도29> 平安시대 서민의 裳 (日本の美術6 p.52)

<도30> 小袖에 裳을 입은 시녀 (日本の美術6 p.68)

4. 上下 樣式時代(鎌倉. 室町時代)

武家가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한 400여 년간의 시대는 鎌倉에 幕府를 설치한 때(1192)부터 幕府 멸망(1333)까지를 鎌倉時代로, 武家政治가 부활되어 室町幕府가 시작된 1336년부터 1573년까지를 室町時代로 구분한다.

平安말기 이후 唐衣裳이 간략화되어 略裝인 고소대와 포가 정장같이 입혀졌다. 오랫동안 女裝의 중요한 구성요소였던 裳과 袴가 室町時代에는 실질적으로 탈락하여 女性 服裝의 전환기가 되었다.³⁷⁾

室町시대 국보 海賦裳(도 31)이 京都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뒤에 늘이는 것이므로 치마 허리폭이 좁아지고 길이는 긴치마로 <도 28, 30>과 유사하다.



<도31> 국보 海賦裳 室町시대(京都국립박물관 엽서)
<도32> 室町시대 시녀 裳(北野天神緣起 六卷本 p.37)



<도33> 室町시대 시녀 裳(北野天神緣起 三卷本 p.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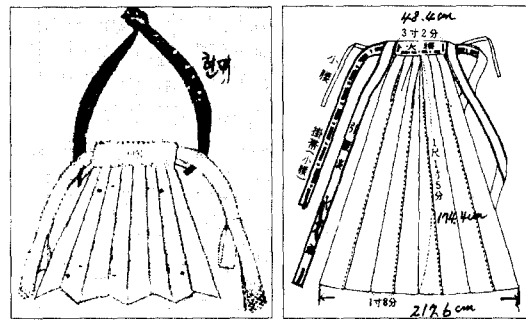
상류 가정의 시녀들이 상을 입은 모습을 北野天神緣起 六卷本(도 32)과 三卷本(도 33) 銅細工娘受福³⁸⁾ 장면에서 보면 小袖보다 짧은 치마를 허리에

서 두르고 있는데 앞에서 여민 것과 옆구리에서 여민 것 2종류가 보인다. 六卷本중 모퉁이에 앉아서 공 같은 것을 들고 있는 여인과 시녀(도 32)가 小袖위에 백색 상을 입고 오른쪽 옆구리에서 끈을 매고 있다. 三卷本의 음식상을 들고 가는 시녀가 小袖위에 입은 상은 형태가 다르다. 앞에서 끈을 뺐는데 앞부분이 약간 짧은치마로 江戸시대 유물³⁹⁾이 있다.

반면 일부 서민층에서는 계속해서 古墳時代와 같은 옷인 垂領, 窄袖, 短衣를 裳 위에 입었다.

5. 小袖樣式時代

京都市를 중심으로 10년간 싸웠던 應仁:난(1467~1476)의 결과, 平安시대이래 전승되었던 公家の 문화는 쇠약하게 되었고, 계속된 戰國시대는 궁정이 가장 쇠약했던 시대로 복식의 전통은 거의 끊어졌다. 공가의 복식은 정세가 안정된 江戸시대가 되면서 부흥하였으나, 옛날과는 조금 달라졌다. 여방장속에 絞纈裳(絞纈裳)이 첨가되었고, 裳에는 현대(懸帶)라는 끈(도 34)이 덧붙여졌으며, 현대를 어깨에서 가슴 앞으로 둘러서 매는 것도 있었다. 오늘날 전해져 내려온 公家裝束과 상(도 35)은 江戸시대에 만들어진 양식에 약간의 개정과 보충을 더한 것이다.⁴⁰⁾



<도34> 江戸시대 裳. 현대(懸帶)가 붙음 (有織故實圖鑑 p.81.)

<도35> 高倉流 宗家 전래 唐衣裳 복원품(共立女子大學 森교수 작품 1992)

IV. 결 론

참고문헌

1. 여자상은 한국 삼국시대의 여러 가지 상이 일 본 古墳, 飛鳥, 白鳳시대(5-8C)까지 계속 착용되었다. 하니와 중 횡선이 있는 치마는 한국 동암리 무덤 벽화 남자 襦·袴의 체크무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무늬가 사용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통일신라시대의 당나라상이 일본 奈良시대(8C)의 상류층에서 입혀지는데 이것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들어간 상이라고 보며 하류층에서는 전시대의 상이 계속 사용되었다.

2. 平安시대(11C)에 唐衣裳(唐衣裳裝束)이 궁정과 상류층의 예복이 되는데 唐衣는 奈良시대 背子가 변한 것이고 裳도 奈良시대의 袴이 변한 것인데 예복에 상을 입을 때는 뒤에서 끌리게 입었다. 唐衣裳은 12단이라고 할 만큼 많이 겹쳐 입었으므로 상이 여머지지 않아 뒤로 돌아간 것이라고 본다. 시녀들은 일할 때 小袖위에 전시대의 상을 허리에 둘러 입었으나 차츰 입지 않게 되었다. 평민도 小袖를 주로 입게 됨으로 상은 없어졌다.

京都를 중심으로 10년간의 싸움(應仁난)과 전국시대로 이어지는 시국이 平安시대의 여러 가지 복식의 전통이 끊어졌고 江戸시대에 예복을 부흥시켰는데 조금씩 달라졌으며 상도 현대(懸帶)라는 끈이 첨가되었다. 현대의 상은 江戸시대의 상을 약간 개정하고 보충한 것이다.

3. 삼국시대의 표상과 내상을 착용하는 입음새가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예복용으로 치마 2개를 입는 법이 계속 되었다고 본다.

4. 우리나라에서도 남자가 상을 입은 적이 있었으며 겹옷으로 입던 주름치마가 예복용 下裳으로 입혀졌다는 가설을 세워 본다.

5. 下裳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된 중국의 禮服用具로 우리나라를 통하여 일본에 전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 1) 신라토우 부부상(유상, 유고), 경주 栢栗寺 이차돈 공양 石幢(短襦, 광고), 백제 무녕왕능 출토 유리동자상(장유, 광고), 고구려, 백제, 신라 國使圖(梁職貢圖, 장유, 광고)
- 2) 김미자, <고구려 의복에 관한 연구>, 백산학보 41호, 1993, pp.60~61.
- 3) <北史>, <列傳>高麗條 婦人襦裙加襪
- 4) 김미자, <치마저고리의 차림새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 논문집 제17호, 1988, pp.94~99.
- 5) 金富軾/辛鎬烈譯解, 三國史記 雜志, 「文武王在位 四年又革婦人之服自此已後衣冠同於中國」, 동서문화사, 1976.
- 6) 金富軾, 삼국사기, 「四頭品女, 表衣只用綿紬已下, 內衣只用小文綾已下, 半臂, 袴只用小文綾純 絹已下, 表裳只用小文綾已下, 襟檔只用綾已下, 表裳只用純絹已下, 襟與裳同, 襴用越羅, 無內裳, 帶禁繡組及野草羅乘天羅越羅, 只用綿紬已下 襪袴只用小文綾已下, 襪只用小文綾純綿紬布, 履用皮已下, 履用素牙角木, 釵禁刻鑲綴珠及純金, 無冠, 布用十八尺升, 色禁赭黃紫粉黃屑緋紅減紫」
- 7) 三國遺事 「庚信與春秋公 正月午忌日 蹴鞠干庚信前 故踏春秋之裙 裂襟紐.....」
- 8) 三國史記, 「庚信與春秋公 蹴鞠因踐 落春秋衣紐.....」
- 9)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p.135.
- 10) <大唐의 繁榮>, 世界文化史, 1968, p.120.
- 11) 程征李惠 編, <唐十八陵石刻>, 陝西人民 美術出版社, 1988, p.65
- 12) 김미자, 『우리 나라 삼국시대의복과 일본의복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pp.57~78.
- 13) 小堀榮壽, 「埴輪と衣服」, 『衣生活』, No.191, 1974, p.34. 田邊昭三, 「古墳時代の服裝と裝身具」, 『服裝文化』 No.152, 1976, p.34 三木文雄, 「はにわ」, 『日本の美術』No.19, 22 支文堂, 1967, pp.22-77. <埴輪>, 陶磁大系 3, 平凡社, 1974年, pp.117-129. 金井塚良一, 『人物埴輪を語る』さきたま出版會, 1991.
- 14) 金井塚良一, 『人物埴輪を語る』, さきたま出版會, 1991, p.18.
- 15) 金井塚良一, 『人物埴輪を語る』, p.181.
- 16) 각주 13) 참조.
- 17) 小堀榮壽, <埴輪と衣服>, <衣生活>, No.19, 1974, p.36.
- 18) 노성한 역주, 『古事記上』, 예전사, 1987, p.65, p.71.
- 19) 「其服飾 男子衣裙襦.....婦人, 亦衣裙襦 裳皆有襪.....」
- 20) 増田美子, 『古代服飾 の 研究』, 源流社, 1995, p.41.

- 21) 江馬務, 『風俗史圖錄』, 中央公論社, 1989, p.17.
- 22) 최재석, 『일본고대사의 진실』, 일지사, 1998, pp.13
2~133.
일본의 당나라 학문승은 A.D. 668~700년에 파견된 일은 없으며 668년부터 700년 사이에 귀국한 당나라 유학승 5인은 모두 668년 이전인 653년과 654년에 파견된 학문승이며 모두 신라 배를 얻어타고 귀국하였다. 당시 일본 불교계의 지배계급인 대승도(大僧都)·소승도(小僧都)·율사(律師)가 당에 파견되어 공부하고 돌아온 학문승이 아니라, 신라 경주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학문승이다.
- 23)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pp.22~40.
- 24) 이춘계는 만다라수장의 자수는 통일신라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춘계 <正倉院의 자수> <正倉院의 복식과 그 제작국>, 일신사, 1995, pp.235~240.
- 25) 김미자, 『日本 天壽國曼荼羅繡帳에 나타난 복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2호, 1998.
- 26) 河鱈實英, 『日本の服飾』, pp.103-104.
- 27) 高橋建自, 『歷世服飾圖說』思文閣, 1975, p.40.
- 28) 小林恵子, 한상구 역, 『天武天皇의 秘密』, 고려원, 1990, pp.89-114
- 29) 『高松塚壁畫의 新研究』,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飛鳥資料館, 1992, p.14
- 30)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pp.38~49.
- 31) 關根眞隆, 『奈良朝服飾의 研究』, 本文編, 中央史學研究叢書, 1974, p.142.
- 32) 河鱈實英, 『日本の服飾』, 保育社, 1980, p.15.
- 33) 최재석, 『일본고대사의 진실』, p.153. 일본은 서기 668년부터 710년까지는 당나라의 사절을 파견하지 못하였으며 701년부터 9세기말까지는 도합 7회의 조공사를 당나라에 파견하였는데 마지막으로 당나라에 파견된 838년의 일본 朝貢使船은 신라의 항해 기술지도로 당나라에 건너갈수 있었음이 그 조공사선에 동승하여 당나라에 간 엔닌(圓仁)의 보고서에 의해서 밝혀졌다.
- 34)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p.56, p.60.
- 35) 日野西資孝編, 『日本の美術』, No. 26, pp.40~41.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pp.72~73.
- 36) 齊藤輝子 『平安時代に すはろ小袖의 成立』 『家政學雜誌』176, 日本家政學會, 1979, p.519.
- 37)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p.98.
遠藤武, 『日本服飾史』東京: 建帛社, p.51.
鷹司綸子, 『公武勞力轉換期にみる服裝의 變動』 『服裝文化』NO158, 문화출판국, 1978, 4, p.49.
- 38) 繪卷 蒙古襲來繪詞 繪師草紙, 北野天神綠起 宮內廳 三の丸尙莊館, 1994, p.37, p.39.
- 39) 河鱈實英編, 『有職故實圖鑑』, p.81.
- 40) 北村哲郎, 『日本服飾史』, p.75.